

하상주보

천주교 성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2022년 4월 10일
제1891호

주임신부: 김태진 베네딕도 보좌신부: 이태섭 요한사도
사도회장: 황원균 알렉산더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 966 8206)
사무실: 703 968 3010 팩스: 703 968 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ive, Fairfax, VA 22033

감사와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루카 22,19)

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루카 23,44-46)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프라 안젤리코

주님 수난 성지 주일 (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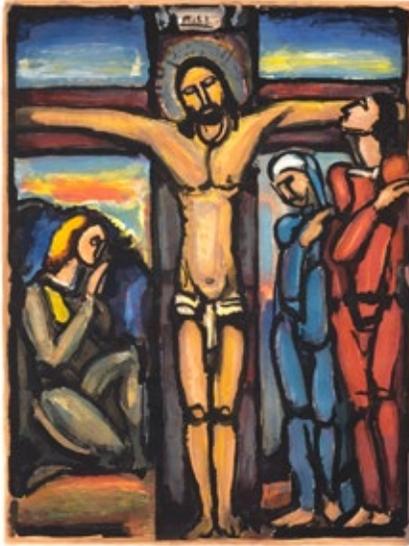
- 제 1 독서** 이사 50,4-7 | 나는 모욕을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주님의 종의 셋째 노래’).
- 화답송** 시편 22(21) | ◎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 제 2 독서** 필리 2,6-11 |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셨습니다.
- 복음 환호송** ◎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 복음** 루카 22,14-23,56 (또는 루카 23,1-49)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기

“성주간 동안 놀라움의 은총을 받기 위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 프란치스코 교황 -

매년 맞이하는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의 전례는 우리 안에 놀라움의 태도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기쁨에서 사형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을 뵈는 고통으로 건너갑니다. 이는 성주간 내내 우리를 동행할 내적 태도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분께서 굴욕의 길을 통해 영광에 이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고통과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승리하십니다. 하지만, 칭찬과 성공에 굴복하는 우리는 (고통과 죽음을) 회피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조루즈 루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요! 제가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예수님에 의해 놀라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삶의 위대함이란, 사랑받고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위대함은 바로 사랑의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 안에서 자신을 낮추신 하느님, 버려진 존재가 되신 전능하신 하느님을 봅니다. 그리고 놀라움의 은총을 통해 우리는 버림받은 이를 받아들이고,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에게 다가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놀라움의 은총을 청합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놀라움이 없다면 잿빛이 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매일 놀라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놀라움을 잃는다면 귀머거리가 됩니다. 더 이상 은총의 경이로움을 듣지 못하고, 더 이상 생명의 빵과 말씀의 맛을 느끼지 못하며, 더 이상 형제들의 아름다움과 창조의 선물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 성주간 동안, 놀라움의 은총을 받기 위해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여전히 하느님의 사랑에 감동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는 그분 앞에서 더 이상 놀라워할 줄 모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타성에 의해 닳아 없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후회 속에 갇혀 우리의 불만족에 의해 마비가 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한 믿음을 잃고, 심지어 우리가 틀렸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쩌면” 뒤에는 우리에게 놀라움의 은총을 주시는 성령의 선물에 우리 마음이 열려 있지 않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놀라움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며 그분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는 저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서는 보잘것없는 이들 안에, 소외된 이들 안에, 우리의 바리사이적 문화가 단죄하는 이들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느님께서서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놀라게 하십니다. 이 놀라움이 우리에게 스며들도록 맡겨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2021년 주님 수난 성지주일예〉 | www.vaticannews.va



바오로 딸 콘텐츠

전례주년에서 가장 거룩하고 경건한 성주간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하느님의 구원 신비 기념

‘성주간’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성 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말한다.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교회의 전례주년 가운데 가장 경건한 때이다. 이 기간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수난과 죽음을 통하여 이룩하신 하느님의 구원 신비를 특별한 방식으로 기념한다. 곧 전례주년 전체의 정점을 이루는 성주간의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도록 해 준다.

○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성주간의 첫날인 ‘주님 수난 성지 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이다. 이날 교회는 미사 전에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환영한다는 상징적 행위로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기념식’을 거행한다.

○ 파스카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은 한 해의 전례주년에서 가장 거룩하고 뜻깊은 기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 부활에 대한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는 삼일 동안을 말한다. 곧 “주님 수난과 부활의 파스카 성삼일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부터 시작하여 파스카 성야에 절정을 이루며 부활 주일의 저녁 기도로 끝난다” (전례주년과 전례력에 관한 일반 규범, 19항).

성주간 목요일 오전에는 각 교구의 주교좌성당에서 교구장 주교의 주례로 사제들이 모두 모여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한다. 이 미사 중에는 사제들이 사제품을 받을 때 한 사제직에 대한 서약을 공적으로 새롭게 하는 ‘사제 서약 갱신’이 있다. 그리고 이날 저녁에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체성사를 기념하는 ‘주님 만찬 미사’를 봉헌한다. ‘재의 수요일’에 시작한 사순 시기는 이 미사 직전에 끝난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 지거뢰더

‘주님 만찬 미사’가 끝나면 성체를 수난 감실로 옮기고 제대포를 벗긴다. 또한 제대 중앙의 십자가를 치우거나 천으로 가린다. 신자들은 수난 감실에 모신 성체 앞에서 조배하며 예수님의 수난을 묵상한다.



〈최후의 만찬〉, 후안 후아네스

성체 조배

“너희는 나와 함께 단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단 말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태 26,40-41)

성체 조배는 주님 수난 예식 전까지 계속한다. 성체를 모셔 두는 장소는 기도와 묵상의 분위기가 이루어지도록 마련하되, 지나치게 화려한 장식은 하지 않는다. 성체는 감실이나 성합에 모시고 문을 잠가야 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성체를 성광에 모시어 내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셨기 때문에 이 감실은 ‘무덤’이 될 수 없으므로 ‘무덤’이라는 표현도 해서는 안 된다.

성체 보관 장소(수난 감실)는 ‘주님의 묻히심’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성 금요일의 성체 분배와 병자들을 위하여 성체를 모셔 두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란 말이나?”(마태 26,40)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머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자들은 주님 만찬 저녁 미사 다음, 밤 시간 동안 지극히 거룩하신 성체 앞에서 조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정이 지나면 소박한 분위기에서 조배를 한다. 주님 수난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1 십자가의 길과 미사 (오전 5:30)

- 함께 시작한 주님 수난 40일간의 여정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4월 13일) 마지막 미사를 봉헌하며 함께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2 The Light is ON for You

- 사순시기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30부터 8시까지 성체현시와 고백성사가 있습니다. 8시에는 성체강복도 있습니다. 교구의 모든 본당에서 같은 시간에 실시됩니다.
- https://thelightison.org 참고하세요.

3 2022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 약정

- 사순 시기 동안 주교님 사목 보조비(BLA)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봉헌이 주님의 사업에 동행함을 느끼며 주어진 삶에 합당한 우리이기를 기도합니다.

4 구역 봉사자 회의

- 일시 : 4월 10일(일) 오전 11:40 (B-3,4)
- 소공동체 봉사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5 단체장 회의

- 일시 : 4월 10일(일) 오전 11:40 (A-1,2)

6 꼬미시움 월례회의

- 일시 : 4월 10일(일) 오후 1시 (B-3,4)

7 하상 성인학교 휴강 안내

- 성주간 동안 하상 성인학교가 휴강합니다.
- 휴강일 : 4월 12일(화), 4월 15일(금)

8 하상회 월례회의

- 일시 : 4월 17일(일) 오전 11:40 (B-3,4)

9 안사회 월례회의

- 일시 : 4월 17일(일) 오전 11:40 (A-1,2,3,4)

10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 4월 17일(일) 오전 11:40 (하상관 #4,5)

11 CYO WorkCamp 기금마련 Easter Egg Basket 판매

- 일시 : 4월 16일(토) 부활 성야 미사 후 판매
- 가격 : \$15, \$25, \$50 (도네이션도 받습니다)
-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권용우 (571) 244-0333

12 제83차 예비신자 모집

- 입교식 : 5월 8일(일) 오전 8:30 (하상관 #110)
- 등록 : 매 주일 선교부 테이블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 이인표 가브리엘 (703) 851-2364

13 부활 제대 장식 꽃 봉헌

- 부활 제대 장식을 위해 꽃을 봉헌해 주실 분은 제대회로 봉헌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수난 성 목요일 밤샘 성체조배 안내

계제마니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실 때 잠들어 있던 제자들에게 “왜 자고있느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여라.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단 말이나?” 고 하시며 당신과 함께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1시간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은혜로운 시간이길 기도합니다.

- ◆ 성체조배 시간은 성 목요일 저녁 10시부터 성 금요일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 ◆ 성체조배 시간표는 게시판에 구역별, 단체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 ◆ 성체조배 시 매일미사 책(P 131)을 참조하세요.

성삼일 전례 안내

- + 성 목요일(4월 14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오후 8:30
- + 성 금요일(4월 15일) 십자가의 길 오후 3시, 오후 7:45 | 주님 수난 예식 오후 8:30
- + 성 토요일(4월 16일) 부활 성야 미사 오후 8:30

주님 부활 대축일(4월 17일) 오전 8시, 오전 10시, 오후 5시(청년)미사
*주일학교 미사는 10시에 친교실에서 봉헌됩니다.

그리스도인 정신의 생활화 이웃사랑을 실천합시다



성당 주변(Rippling Pond Dr.) 이웃들의 정원에 쓰레기나 음료수 빈칸 등을 버리지 마세요.



새벽 미사 참석 시, 저속 운행(15마일)과 성당 방향으로 주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주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22년 4월 3일(사순 제5주일)

주일헌금	\$ 6,840.00
교무금	\$ 8,515.00
교무금(신용카드)	\$ 3,620.00
감사 헌금	\$ 550.00
온라인 봉헌	\$ 5,010.00
합계	\$ 24,535.00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버지니아 성정 바오로 성당 제공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 30, 830
Fios Ch. 30

4월 14일(목) 오후 5:00-6:00
4월 15일(금) 저녁 8:00-9:00
4월 17일(일) 오전 6:00-7:00

- 신부님 주일 강론
- 특강 : 김진태 안드레아 신부님의 “하느님의 집은 어떻게 생겼을까?” (6)
- 중세성당의 출발 : 로마네스크 양식

NEW

코로나19 본당 행정지침

오미크론 변이 대 확산 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던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본당의 코로나19 행정 지침을 4월 1일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시행합니다.

- 마스크 착용은 개인 선택으로 하며 손 소독은 계속됩니다.
- 영성체 방식은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 본당 입구 성수대와 성가책 사용도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전염병의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미국에서 유럽의 확산세와 비슷한 코로나19 감염의 증가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적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안내(Mass Schedule)

주일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00 AM · 10:00 AM(교중미사) · 2:00 PM(학생미사) · 5:00 PM(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 7:30 PM						
월, 목, 토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33%;"></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화, 금</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수</td> </tr> <tr> <td>· 6:00 AM</td> <td>· 7:30 PM</td> <td>· 11:00 AM</td> </tr> </table>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